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요인 -5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상 숙* · 지 은 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학령기는 발달특징상 취학에 의한 사회성의 발달과 지적으로 어휘가 급격히 발달하고 구체적 사고에서 추상적인 사고로 이행하는 과도기이므로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자녀들의 요구와 흥미에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Choi, 1991). 학령기는 학령전기 아동보다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덜 의존하게 되고, 대인관계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로 초등학교 과정은 가정으로부터 나와 집단 속에서 사회화 훈련이 시작되는 최초의 시기로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교사와 교우관계라는 두가지 사회화의 기능에 의해서 사회생활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학교는 아동에게 학습의 장이 된다. 학교는 친구와의 만남으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게 되며 사회화되어 가는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경험될 필요가 있다(Hymovitch & Chamberlain, 1980). 오늘날 학교 교육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보다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으며(Lee & Kim, 1987), 이 목적은 학

교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교적응이란 학생들의 교과활동, 학급활동, 특별활동, 기타행사에서의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Bae, 1998).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Kim 등, 1994; Lee 등, 1994).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상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가정이므로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족 기능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가정환경이 개인의 성장발달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가장 현저한 시기인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Ryu, 1985). Kelley(1994)는 가정환경의 응집력과 아동의 성격, 특히 안정성,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가족 구성원간의 긍정적 태도와 아동의 안정성, 사회성과 신뢰성이 관계가 있는데 그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Kim(1987)은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학력, 부모와의 가정 내 접촉시간과 주택 소유 형태 등이 아동의 적응 및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분위기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

*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

**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교신저자 E-mail : hanewha99@hanmail.net)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Shaw & Emery(1988)은 아버지의 직업이 비숙련, 반 숙련 직업, 확대가족과 결혼생활 부조화를 보이는 가정의 아동에게 행동문제가 더 많았고, 학업 능력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Stolberg(1985)는 자녀수에 따라 부모의 적응이 결정되며 부모의 적응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결정하고 이것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가족의 구조, 가치와 신념, 가족지지 체제(Birgenheier, 1993; Ji, 2002; Kang, Lee, 1992)와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Ahn, 1992; Hong, 2001; Ji, 2002; Kim, 1999), 학년 또는 연령(Koo, 1995), 용돈(Hong, 2001; Kim, 1999), 건강상태(Rhu, 1994; Shin, 1995), 성적(Cecily, 1994), 대화상대(Jung, 1992; Kang, Lee, 1992)에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별, 학년, 출생순위, 학업성적, 용돈, 대화상대, 부모의 학력과 직업, 경제상태 등이 아동의 학교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 요인임을 시사해주고 있으나 이들 변수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을 기초로 주요 예측 변수와 이들 변수의 추정 확률을 제시함으로써 부모들과 아동을 지도하는 담임 교사, 보건교사들에게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상담의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과 각 요인들의 예측확률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 가능한 요인을 확인한다.
- 2)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하는 요인들과 각 요인의 추정된 확률을 확인한다.
- 3)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 1) 학령기 아동

6 - 12세 까지 근면성을 발달과업으로 하고있는 시기의 아동으로, 강한 의무감을 가지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업에 참여하고 그들의 성공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시기의 위험은 부모나 학교가 아동이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을 기대할 때 생기는 열등감이다(Erickson, 1963).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학교생활적응정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Hall, Lamb & Perlmutter, 1986)으로, 본 연구에서는 Lee(1990)가 개발한 학교생활적응도구를 수정하여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 관계에 대한 내용을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3) 예측요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이 독립변수를 말하며(Lee, Lim & Park, 1998),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성별, 학년, 성적, 건강상태, 용돈수준, 대화상대, 가정의 경제상태, 결손가정 여부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자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서울(동대문구)·경기지역(의정부, 분당)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 5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의 4·5·6학년 중 1학년씩 무작위로 표출하였고, 표출된 학급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설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직접 기입이 가능한 학생을 선택하였다.

2. 연구도구

1) 학교생활적응정도

본 연구에서는 Lee(1990)가 개발한 학교생활적응도구를 연구자가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ee(1990)의 학교

생활적응도구 중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관계, 학교 행사 관계의 4개 하위영역을 선택하여 각 영역별 5문항씩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점 척도(0-3점)인 반응범주를 0은 25점, 1은 50점, 2는 75점, 3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척도 평점 > 68.75 는 "적응을 잘함"으로 적용척도 평점 ≤ 68.75 는 "적응을 잘못함"으로 판정하였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을 대상으로 한 Koo(1995)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값은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예비조사는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경기지역 초등학교 학생 중 정상가정자녀 15명과 이혼가정자녀 15명에게 실시한 후 측정도구가 적절한지를 신뢰도 검증하여, 아동이 어려워하는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재작성된 질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 양호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 기입요령을 사전교육하고, 양호교사는 각 반 전체 아동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당일 회수하였다. 총 700부로 모두 회수되었으나 그 중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86부를 제외한 614부만을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SPSS Windows for 11.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요인은 exp(B)에 대한 신뢰구간을 95%로 하여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학교생활적응정도 분류의 분리접근은 0.5로 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예측 및 관찰치의 분석결과로 비교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자아동(51.3%)은 여자아동(48.7%)로 보다 많았으며, 학년별 분포는 6학년(72.6%)이 4학년(8.3%)이나 5학년

(19.1%)보다 많았다. 형제수에 따라서는 장녀·장남(42.0%)이 중간(10.7%), 막내(32.4%), 외동딸·외아들(14.8%)보다 많았다.

가정의 경제상태는 중간이하(41.5%)가 중간이상(58.5%)보다 적었고, 용돈수준은 매달 1만원 이상(79.2%)이 1만원 이하(20.8%)보다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49.5%)가 대학교 이상(50.4%)보다 적었고,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60.8%)가 대학교 이상(39.3%)보다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사무관리직인 경우(47.6%)가 영업직/서비스직(26.1%), 노동직/기타(26.3%)보다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직업이 있는 경우(37.6%)가 주부인 경우(62.4%)보다 적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ubjects	Normal F.C. (N=614)	
		N	(%)
gender	Male	315	51.3
	Female	299	48.7
grade	4 th	51	8.3
	5 th	117	19.1
	6 th	446	72.6
brotherhood	eldest	258	42.0
	middle	66	10.7
	last	119	32.4
	only daughter(son)	91	14.8
economic status of family	lower than middle	255	41.5
	higher than middle	359	58.5
monthly pocket money(won)	< 10,000	486	79.2
	≥ 10,000	128	20.8
father's education level	lower than high school	304	49.5
	greater than baccalaureate	310	50.4
mother's education level	lower than high school	373	60.8
	greater than baccalaureate	241	39.3
father's employment	Profession/official	292	47.6
	marketing/service walker/etc	160	26.1
		162	26.3
mother's employment	yes	231	37.6
	house keep	383	62.4
health status	lower than middle	173	28.2
	higher than middle	441	71.8
educational point	lower than middle	213	34.7
	higher than middle	401	65.3
conversation people	none	97	15.8
	family/courson friend/other	278	45.3
missed family	general	239	38.9
	missed	497	80.9
		117	19.1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중간 이하(28.2%)가 중간이상(71.8%)보다 적었고, 아동의 성적은 중간이하가 (34.7%)가 중간이상(65.3%)보다 적었다. 아동의 대화상태에 따른 분포는 대화상태가 없음(15.8%)가 가족/친척(45.3%), 친구/기타(38.9%)보다 적었고, 결손가정에 따라서는 일반가정(80.9%)이 결손가정(19.1%)에 비하여 많았다(Table 1).

2.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요인을 위한 새로운 변수의 생성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p < .20$ 에서 성별, 학년, 출생순위, 경제상태, 용돈, 부친의 교육수준, 모친의 직업유무, 건강상태, 성적, 대화상태, 결손가정여부에 대한 16개의 새로운 변수가 생성되었다(Table 2).

3.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요인과 추정된 확률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요인으로는 16개의 새로운 변수중에서 성별, 학년, 경제상태, 용돈, 성적, 건강상태, 대화상태, 결손가정여부에 대한 10개의 변수가 예측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예측요인들의 추정된 확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65배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학년에 비하여 5학년이 0.29배(29%), 6학년이 0.27(27%)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동보다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경우가 학교생활적응정도도가 2.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달 용돈은 1만원 이상 받는 학생보다 1만원 이하로 받는 아동이 2.92배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동보다 보통이하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2.44배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이 양호한 아동에 비하여 성적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2.68배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Table 2) Estimated new variable for school adaptation

Characteristics	Estimated Coefficient	Estimated Standard Error	χ^2	p-value
gender	.31	.16	3.74	.053
grade 1	-.82	.36	5.02	.025
grade 2	-1.12	.33	11.75	.001
brotherhood1	-.49	.25	3.79	.054
brotherhood2	-.86	.33	6.67	.010
brotherhood3	-.99	.26	14.14	.000
economic status of family	.98	.17	33.85	.000
monthly pocket money(won)	-.91	.21	18.78	.000
father's education level	.33	.16	4.07	.044
mother's education level	.35	.17	4.53	.038
mother's employment	.25	.17	2.31	.129
health status	1.21	.18	44.26	.000
educational point	1.17	.18	42.43	.000
conversation people1	1.31	.30	19.28	.000
conversation people2	1.19	.30	47.73	.000
missed parents	1.75	.25	47.73	.000

$p < .20$
주)

- * gender: 남학생을 기준으로 한 여학생
- * grade 1: 4학년을 기준으로 한 5학년
- * grade 2: 4학년을 기준으로 한 6학년
- * brotherhood1: 외동(아들, 딸)을 기준으로 한 장남/장녀
- * brotherhood2: 외동(아들, 딸)을 기준으로 한 중간
- * brotherhood3: 외동(아들, 딸)을 기준으로 한 막내
- * economic status: 잘 산다를 기준으로 한 잘못 산다

- * monthly pocket money: 1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1만원 미만
- * father's education level: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한 대졸이상
- * mother's employment: 고졸이하를 기준으로 한 대졸이상
- * mother's employment: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 전업주부
- * health status: 매우건강함을 기준으로 한 보통이하
- * educational point: 양호함을 기준으로 한 양호하지 못함
- * conversation people1: 없음을 기준으로 가족/친척이 대화상태
- * conversation people2: 없음을 기준으로 한 친구/기타
- * missed parents: 결손가정을 기준으로 한 정상가정

<Table 3> Estimated variables and provability for school adaptation

Characteristics	Estimated Coefficient	Estimated Standard Error	x2	df	p-value	Odds Ratio
gender	.498	.203	5.993	1	.006	1.645
grade 1	-1.231	.450	7.497	1	.001	.292
grade 2	-1.301	.406	10.271	1	.000	.272
economic status of family	.880	.208	17.857	1	.000	2.411
monthly pocket money(won)	1.072	.249	18.584	1	.000	2.923
health status	.892	.214	17.423	1	.000	2.439
educational point	.985	.213	21.344	1	.006	2.678
conversation people1	.990	.358	7.664	1	.006	2.692
conversation people2	1.000	.364	7.529	1	.000	2.717
missed parents	1.235	.278	19.748	1	.023	3.437

Log-Likelihood = -334.06 p(<.05

주)

* gender: 남학생을 기준으로 한 여학생

* grade 1: 4학년을 기준으로 5학년

* grade 2: 4학년을 기준으로 6학년

* economic status: 잘 산다를 기준으로 한 잘못 산다

* monthly pocket money: 1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1만원 미만

* health status: 매우 건강함을 기준으로 한 보통이하

* educational point: 성적 양호함을 기준으로 한 양호하지 못함

* conversation people1: 없음을 기준으로 한 가족/친척이 대화상대

* conversation people2: 없음을 기준으로 한 친구/기타에 대한 경우

* missed parents: 결손가정을 기준으로 한 정상가정

<Table 4> Comparison of predicted and observed data

observed		Predicted		Percentage Correct
		adaptational decision bad	good	
adaptational decision	bad	223	85	72.4
	good	75	231	75.5
Overall Percentage				73.9

The cut value is .500

* Sensitivity: 231/306 = .724

* Specificity: 223/308 = .755

* False-positive = 85/316 = .269

* False-negative = 75/298 = .252

다. 대화상대가 없는 아동에 비하여 가족/친척과 대화를 하는 경우는 2.69배, 친구/기타와 대화를 하는 경우 2.72배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손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정상가정의 아동이 3.44배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서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모형의 적합도는 .739로 614명의 응답자 중 73.9%가 옳게 분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Table 4>.

IV. 논 의

4.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모형의 적합도

학교생활적응정도를 잘할 것이라 기대했던 아동이 실제 적응을 잘한 것으로 나타난 확률은 72.4%, 학교생활적응정도를 못할 것으로 기대했던 아동이 실제 적응을 못한 경우는 75.5%, 적응을 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적응을 못한 경우는 26.9%, 적응 못한다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적응을 잘한 경우는 25.2%였다. 따라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변량분석에서 학교생활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출생순위, 경제상태, 용돈, 부친의 교육수준, 모친의 직업유무, 건강상태, 성적, 대화상대, 결손가정여부에 대한 16개의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요인을 다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별, 학년, 용돈, 성적, 대화상대와 부모의 경제상태, 결손가정여부에 대한 10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이들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확률추정결과 남자아동에 비해 여자아동이 1.65배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우관계,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나 학습 분위기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Ahn, 1992; Cho, 1984; Jang, 1987)와 학교생활 적응정도 측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관계, 교사관계, 수업참여 영역에서 더 적응도가 높다는 연구(Hong, 2001; Ji, 2002; Jun, 2000)와는 유사한 결과이나 Kim(1999)의 연구에서 남자아동이 학교생활적응정도가 여자아동보다 높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에 비하여 5학년이 0.29배, 6학년이 0.27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일수록 더 잘 개발된 대처기술을 소유하고 있어 학교생활적응정도 총점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Ji(2002)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로, 이는 아동이 소유하고 있는 대처능력이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받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이 받는데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상태는 보통이하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보통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동보다 2.44배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스트레스와 건강증상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한 Shin(1995)의 연구결과와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부적응적 정서가 높고 신체병리적인 반응이 높다는 Rhu(1994)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동은 건강상태가 좋은 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이 스트레스로 학교생활적응정도도 낮게 나타나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스스로가 자각하는 정도이므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확한 측정도구를 다시 개발하여 적용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양호하지 못한 아동이 성적이 양호한 아동보다 2.68배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Cecily(1994)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된다는 연구와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학업성적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Lee(199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좋은 아동일수록 공부에 대한 집착과 과의활동으

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가정의 경제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정도가 2.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상류층 가정의 아동이 적응도가 높다는 연구(Hong, 2001; Kim, 1999)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인지적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Kang(1986), Kim(1987)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한달 용돈이 1만원 이하인 아동이 1만원 이상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보다 2.9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상류계층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의도를 묻고 벌을 가하여 자녀의 적응력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행동의 결과에 따라 벌하므로 자녀의 적응력이 낮다고 한 Hall(1986)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가정의 경제상태가 나쁘고 용돈이 적은 아동에서 학교생활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여러 선행연구(Hall, 1986; Hong, 2001; Kang, 1986; Kim, J.Y., 1999; Kim, E.H., 1987)에서 대부분 경제상태가 좋고, 용돈이 많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다는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경제상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노력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후후 연구로 아동과 함께 부모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측면을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화상대에 따라서는 대화상대가 없는 아동에 비하여 가족/친척과 대화를 하는 경우는 2.69배, 친구/기타와 대화를 하는 경우 2.72배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구조에 따라서는 결손가정의 아동에 비하여 정상가정의 아동이 3.44배 학교생활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상대와 결손가정여부는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으므로 함께 묶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우문제가 있는 학생일수록 더 많은 학교적응에 문제를 갖고있다는 Berndt 와 Keefe(1995)의 연구, 가정 내 갈등이 낮고 대화가 많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학교에서의 높은 성취력이 관찰된다는 McClowry 등(1994)의 연구, 결혼생활 부조화를 보이는 가정의 아동에게 행동문제가 더 많았다는 보고(Shaw & Emery, 1988), 부부 싸움이 잦은 가정은 아동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계가 있었다는 보고(McClowry et al., 1994)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Jung, 1992; Kang, Lee, 1992)에서도 정상 가정의 아동보다 이혼가정의 아동이 학교에서의 적응,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6학년 어린이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보고에서 정상가정 아동보다 편부모 가정 아동이 친구문제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연구결과(Kanner, 1991), 가족 내 갈등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에게서는 학교에서의 높은 성취력이 관찰되었다는 보고(Parkinson, 1978) 등을 지지해주는 결과로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가족구성원 가족지지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정도 예측요인은 성별, 학년, 경제상태, 용돈, 성적, 대화상대, 결손가정여부에 대한 11개 변수였으며,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모형의 적합도는 .739(73.9%) 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과 이들의 추정확률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을 지도하는 담임교사, 보건, 양호교사들에게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 상담의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경기지역의 5개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for 11.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요인과 확률추정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예측 및 관찰치의 분석결과로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변수는 단변량 분석결과 아동의 학년, 출생순위, 용돈, 건강상태, 성적, 대화상대와 부모의 경제상태, 부모의 교육수준, 모친의 직업유무, 결손가정여부에 대한 16개의 새로운 변수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다변량 분석 결과 아동의 성별, 학년, 성적, 용돈, 대화상대, 건강상태와 결손가정여부에 대한 10개의 변수가 선정되었다.
2.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변수들에 대한 추정확률에 대한 분석결과 학교생활적응정도는 남자아동보다 여자

아동이 1.65배, 4학년아동보다 5학년(.29배), 6학년(.27배)이 낮았으며, 건강상태가 보통이상인 아동보다 보통이하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2.44배, 성적이 양호한 아동보다 성적이 양호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2.68배, 용돈을 1만원 이상 받는 학생보다 1만원 이하로 받는 아동이 2.92배 더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경제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좋다고 생각하는 아동보다 2.41배, 대화상대가 없는 아동보다 가족/친척과 대화를 하는 경우는 2.69배, 친구/기타와 대화를 하는 경우 2.72배 높았으며, 결손가정의 아동보다 정상가정의 아동이 3.44배 학교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확률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예상된 아동 중 실제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 아동은 72.4%,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한다고 예상된 아동 중 실제 적응을 잘 한 아동은 75.5%로 모형의 적합도는 .739(73.9%)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정도 예측모형의 적합도는 .739(73.9%)로 아동의 성별, 학년, 용돈, 건강상태, 성적, 대화상대와 부모의 경제상태와 결손가정여부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정도를 예측할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을 지도하는 담임교사, 보건, 양호교사들이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정도 상담시 구체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달 및 원만한 생활유지를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경제상태, 용돈, 건강상태 그리고 성적은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으므로 지역, 계층, 가정구조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표집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반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2) 경제상태, 용돈, 건강상태에서 선행연구와 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로 아동과 함께 부모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측면을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정도에 관련된 변수 중 단변량분석에서 확인되었던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Y. B. (1984). *Characteristics of Adaptation Behavior*. Dankuk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Ahn, Y. L. (1992). *Family's Environment Influence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Yonse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Bea, S. H. (1998). *Stress Coping and Friendship and School Adaptation on School age*. Chungbuk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Berndt, J. T.,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21-1329.
- Birgenheier, P. A. (1993). Factors related to the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11(3/4), 49-65.
- Cecily, B. (1994). *Family Centered Nursing Care of Children*. USA:Saunders Company.
- Cho, J. H. (1984). *A Study of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Inha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Choi, S. Y. (1991). *The Study of stress on childhood: By David Elkind's Theor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Y:W.W. Norton & Company.
- Hall, E., Lamb, M.E., & Perlmutter, M. (1986). *Child Psychology Today*. NY: Random House.
- Hong, Y. R. (2001). *Stressor, Coping Style, Communication with Mother & School Adaptation in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Kyungbook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octor's Thesis.
- Hymovitch, D. P., & Chamberlin, R. W. (1980). *Child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Jang, H. S. (1987). *The Effect of Self-esteem for School Adaptation*. Kyungsa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Ji, E. S. (2002). *A Comparative Study of Health State and School Adaptation Between Divorced Family's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Kyunghee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Jun, W. Y. (2000). *The Effect Self-esteem and School point for School Adaptation*. Hongik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Jung, J. S. (1992). *The Study for Self-esteem and Adaptation and Self-realization*. Korea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Kang, J. K. (1986).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for Educational Effec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Doctor's Thesis.
- Kang, S. H., & Lee, J. Y. (1992). The Effect of Stress Buffer to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for Children's Adaptation. *Journal of Korean Pediatrics*, 13(2), 102-123.
- Kanner, T. (1991).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logy Research*, 11, 213-218.
- Kelley, M. L. (1994). The effects of military-induced separation on family factors and child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1), 103-111.
- Kim, E. H. (1987). *Children's School Function by Family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Kim, J. Y. (1999). *A Study for Self-esteem and School Adaptation*. Chungnam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Koo, J. A. (1995).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Adaptation on School Age*. Yonse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Lee, D. H., & Kim, J. H. (1987).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Hakmoonsa.
- Lee, E. O. Lim, N. Y. & Park, H. A. (1998). *Nursing Medical Study & Statistic Analysis*. Seoul: Sumunsa.
- Lee, S. P. (1990). *The Comparative Study of School Point and Behavior for School Adjustment*. Hongik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McClowry, S.G. et al. (1994). The effects of child temperament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circumstance in the maladjustment of school-age children.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7(1), 25-35.
- Parkinson, C. E. (1978).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Child Development. *Midwife, Health visitor & Community Nurse*, 15(6), 236-239.
- Ryu, S. Y. (1994). *Prestudy for evolution of stress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ungnam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 Shaw, S. D., & Emery, E. R. (1988). Chronic Family adversity and school-age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27(2), 200-206.
- Shin, H. S. (1995). Stress and Adjustment on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4), 808-819.
- Stolberg, A. L., & Bush, J. P. (1985). A path analysis of factors predicting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4(1), 49-54.

- Abstract-

The Estimated Factors for School Adaptation on School Aged Children by General Characteristics -5 Elementary Schools-

Han, Sang Sook* · Ji, Eun Sun**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estimation variables and predicted probability for school-aged children's school adapta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614 children. Data were analyzed by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Windows 11.0. **Results:** 1. Girls adjusted themselves 1.65 times easier than boys, and 5th-and 6th-graders adjusted themselves slightly easier than 4th-graders. Children with monthly pocket money lower than 10,000 won adjust adjusted 2.92 times easier than those with a larger amount of pocket money, unhealthy children adjusted themselves 2.44 times easier than healthy ones, and children with low academic achievement adjusted themselves 2.68 times easier than those with high academic achievements. 2. As for family economic status, children who thought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ir family poor adjusted themselves 2.41 times easier than those who thought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ir family fine. As for conversation with people, children conversing with families and relatives adjusted themselves 2.69 times easier and those conversing with friends and others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adjusted themselves 2.71 times easier than those conversing with none. Children from normal families adjusted themselves 3.44 times easier than those from deficiency families. 4. The overall prediction rate was 73.9%.

Conclusions: It is concluded that nurses, teachers and parents are important in improving school-aged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Key words : School-aged children, School adaptation, Estimation factor